

# 건설안전기술사 1차 합격자 간담회

우리협회 한경보 부회장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였다.



장 소: 우리협회 회의실

일 시: 2004년 11월 4일 16시

참석자: 최관용(SK 건설), 김중호(대우건설), 전병호(신도건설), 엄윤삼(대우건설) 서지원(한신공영, 권영일(한국산업안전공단), 조인환(노원산업), 김철진(삼익건설) 최정현(한국재난연구원)

주관: 한경보 우리협회 부회장

## 전문가로서 무재해 사업장 건설에 앞장서야



**김중호:** 먼저 오늘 간담회 자리를 마련 해주신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. 대우 GK CM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시공사업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.

이번 건설안전기술사 합격은 25년간 한 업종에 근무하며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. 그간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관련 공중의 안전성 평가, 안전시설, 협력업체 및 근로자의 안전·환경·보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

어왔습니다. 건설안전 기술사 자격 취득을 계기로 보다 구체적이고 선진화된 안전관리 기법 체계구축과 현장공정을 고려한 시기적절한 활동 및 무재해 사업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


**서지원:** 수년간의 노력 끝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음에 마음 뿌듯함을 느낍니다. 합격을 계기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더욱 키워하겠습니다.

## 다른 현장에 파급효과가 큰 새로운 장비 등의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



**최관용** : 20년간 현장관리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안전관리가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. 안전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으며, 향후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모델을 만들어서 각 현장에 파급시키고 타사로 확산 시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.



**조인환** : 강구조물 업계에 근무하며 습득한 경험을 토대로 철 구조물 보호 장구 등의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, 철 구조물 이동시 미끄러짐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화라든지 크레인 등의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. 안전에 관한 저의 철학이란 안전이란 현장의 선택적 요소가 아닌 기본적 필수요소라는 생각입니다.

## 최고 경영자의 마인드가 관건



**전병호** : 첫째, 무재해운동의 경우 최고 경영자의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일선 책임자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관심표명이 필요합니다. 둘째, 산공법 적용 시 안전관리부분에 지침이 있어야 하겠습니까. 셋째, 안전 분야 인원에 대한 위상이 더욱 높아지도록 업계 및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.



**김철진** : 현장생활 16년 중 절반은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. 안전관리자로서 법적인 역할보다 이제는 실질적인 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할 때입니다. 더불어 안전관리자의 역할에 걸맞

는 권한 부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.

## 건설안전기술사 위상제고에 힘써야 하겠습니다.



**최정현** : 건설안전기술사 위상 제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. 정밀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유지관리업체에서 대행하는 등의 형태는 안전대책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안전진단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.



**전병호** : 안전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학교교육 과정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, 현업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안전기술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효율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또한, 일정 규모 이상에서의 기술사 배치기준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.

## 안전과 시공이 함께 간다는 사고방식의 전환 필요



**권영일** : 현장 신기술, 신공법의 품질기준은 있으나 안전 기준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. 이러한 사항의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현장의 인력이 노령화 또는 비숙련공이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.



**엄윤섭** : 안전 분야 기술적인 발전도 중요하겠으나, 건설인 스스로의 자발적인 관리가 기본입니다. 시공과 안전이 함께 가는 선진적 사고방식을 만드는데 우리 기술사들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. ☺